

신안 앞바다는 만선 행진중

조기 이어 민어 풍어...가격 높아 소득 짹짹

“어부생활 30년 만에 민어가 이처럼 많이 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안강망 진양호(27급) 이길배 선장(54)은 지난 4일 신안해역에 조업을 나갔다가 ‘물 반 고기 반’인 때아닌 민어 떼를 만났다. 주로 3~7kg나가는 민어들로 만선을 했지만 10~20kg 나가는 대형급 민어도 많이 잡혔다. 50여척에 이르는 목포 안강망 어민들은 조기에 이어 민어 풍어로 대박이 터지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다.

민어 조업시기는 7월에서 11월까지가 성수기이지만 이처럼 4월 들어 민어가 많이 잡힌 것은 이례적이다. 수산연구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수온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장 환경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소 4월초 안강망 어선들은 도미와 농어를 대상 어종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시기는 농어가 어민들의 주소득원이 됐다. 민어는 소화와 흡수가 빨라 성장기

어린이나 몸이 쇠약한 노인·환자들의 기력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농어보다 높은 kg당 2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어민들은 “최근 들어 민어가 풍어를 이룬데다 가격도 높아 어민들이 어느 때보다 만족해 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 시기 농어가 풍어를 이룬 것을 비취 볼 때 조만간 조기, 민어에 이어 농어가 또다시 만선의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운무에 휩싸인 목포대교

5일 운무에 갇힌 목포대교가 한 쪽의 동양화 같은 몽환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목포대교는 3137억원을 들여 죽교동 북항과 고하도(신외항)를 연결하는 3.1km의 해상교량으로 오는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연합뉴스

목포시-목포 중앙고 '관광·조리 과학 협약'

목포시가 남도 음식을 대표하는 목포의 맛, 한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발돋움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4일 목포 중앙고등학교(이사장 김호남)와 '관광·조리 분야 과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발굴로 동북아 관광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목포중앙고는 2012년 특성화고 체제 개편 및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목포중앙고의 관광·조리 관련학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목포중앙고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인력공급, 인적자원 개발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함평천지한우' 품질 인증

고급육 브랜드 평가...1등급 이상 89%

함평군 고급육 브랜드인 '함평천지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군 평균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함평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회(회장 김낙현)에 따르면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8.6%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조사한 함평군 전체 출현율(82.9%)보다 5.7% 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동안 군은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장려금·가세 장려금·우량영역 지원 등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부단한 노력



을 기울여왔다. 김낙현 회장은 "170명의 회원이 6500두의 가세한우를 사육하면서 사양관리·혈통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 "FTA 발효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질 좋은 '함평천지 한우'를 생산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진도 해삼 "중국 시장 잡아라"

군·광주·전남중기청 제품 개발 업무 협약

진도군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해삼을 경쟁력으로 수출제품으로 개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삼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초 지자체간 협약이다. 현재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량은 120만 t 정도지만 자체 생산량은 25만 t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중소기업청은 마른 해삼 등 고부가가치 해삼 제품개발을 위해 (주)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해양영어조합법인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최근 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자도 어업진단유형공사 투자 및 해삼 연구센터 건립과 맞물려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2차 가공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수산가공회사인 쉐다렌(大連) 장자도 어업진단유형공사는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자해 진도해역에 해삼·전복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오당 안동숙 화백 사생대회 함평군 내달 4일 개최

함평군은 '제14회 함평 나비 축제' 기간인 5월 4일 나비축제장에서 '오당 안동숙 화백 전국 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생대회는 나비와 환경을 주제로 한 친환경 축제인 나비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의적 예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는 유치원생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부문은 수채화·유화·크레파스화 등이다. 주제 및 소재는 당일 발표하며, 참가자가 사용할 미술도구는 본인이 지참해야 하고 화지는 당일 지급된다. 참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며, 우편 또는 FAX(061-320-3575)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61-320-3250)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전 북

남원시내 기업형 슈퍼마켓 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남원시내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3곳이 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남원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제 공포에 따라 이마트 남원점·롯데수퍼 도동점·롯데수퍼 노암점이 8일 의무 휴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4월부터 매월 2회(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한

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해당 준 대규모 점포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행실태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제 공포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중·고생 교복지원사업 표류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중단 요구...道, 일단 수용

전북도가 4년째 지속해온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 선거 역풍을 맞았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정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왔다. 도는 올해도 대비 30%, 시·군비 50% 등 10억여원을 들여 5300명에게 혜택을 주기 하고, 1월초 시군에 예산을 배정했다. 군산·익산·완주·

정읍시 등은 1672명에게 교복비를 이미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말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교복지원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된 만큼, 총체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선관위의 최종 결론 때까지 사업을 중단기로 하고, 2월 말 일선 시·군에 중지를 통보했지만 일부 시·군은 개회전 동복 교복비를 지원한 상태여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교복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선거 운동 및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김제 드라마세트장 건립 무산 市 "방송사 축소 제작 일방 통보에 논의 중단"

김제시는 방송 드라마세트장 건립 지원 논의를 중단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는 종교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는 모악산 권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SBS '대풍수'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드라마세트장 건립 지원에 필요한 제반 행정·법적 절차를 마치고 35억원의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SBS방송사 측이 편성기간을 당초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축소 제작하면서 김제시 관내 및 인근 세트장 활용분량 축소, 드라마세트장의 가설 건축물 축소 의향 등 일방적으로 제작편경을 통보해 오면서 차질을 빚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이후 시는 방송사·제작사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시는 ▲투자대비 홍보효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드라마 세트장의 가설건축물 사후 관리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과 시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드라마세트장 건립지원 논의를 중단기로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드라마세트장 건립 무산으로 세트장 건립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줄 것으로 판단해 다른 관광진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정읍지역 유치원생들이 5일 정읍소방서 '이동안전 체험차량 교실'에 참가해 소화기로 불을 끄는 체험을 하고 있다. <정읍소방서 제공>

단 신

익산도서관 9월까지 '독서 릴레이'

지난 2월 '책 읽는 문화도시'를 선언한 익산시가 책을 읽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해 함께 책을 읽는 독서문화 진흥운동인 '독서 릴레이'를 추진한다. 익산 시립도서관은 오는 15일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 릴레이'의 시작을 알릴

출발 주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16일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독서 릴레이'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릴레이 도서는 '다름이의 남다른 여행'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정정보건센터, 장애인 작품 전시회

군산시 정정보건센터는 4월 '정신건강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 정신장애인의 끼와 잠재력을 발산시킨 정신 장애인 작품전시회 '제4회 꿈지락 전'을 갖는다. 장애인들을 지도한 고보연 작

가는 "군산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작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냈다"며 "이번 전시회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편견해소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금석기자 nogusu@

남원 인월면 보건지소 준공

남원시 인월면 보건지소가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시는 총 사업비 6억4600만원을 들여 인월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했다.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1층에는 진료실·보건교육실·건강증진실, 2층에는

주거시설(공공보건의 숙소)을 배치했다. 특히 건강 증진실에는 런닝머신 등을 갖췄다. 남원시는 올해 10억4000만원을 들여 송동 장국·보령 진기·산동 대상·아영 봉대 등 보건진료소 4곳을 준공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창군-日 고치현 시만토정 우호 협정

고창군은 최근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 청사에서 다카세 미쓰노부 정장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만토정과 교류를 시작해 민간·행정·교육·농업분야와 관련해 시만토초에서 7회 56명이, 고창군

은 2회 37명이 상호 방문했다. 그동안 선진 농업기술 견학으로 지역농업과 비교발전에 일조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시만토정 학생이 관내 학교 영어캠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로 신뢰를 쌓았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